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것, 그리고 그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용서 받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죄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신 일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상황을 설명할 때 '밧세바가 낳은 아이'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12:15)"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더라도 다윗의 범죄의 행위 자체와 그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그 아이를 위하여 간구하였지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 가셨습니다.

그 후에는 아히노암의 소생으로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마아가의 아들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기로 계략을 꾸미고 다말을 강제로 제압하여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말을 미워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압살롬이 다말을 위로하며 암논을 미워하였습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이 양 털을 깎는 일에 암논을 초대하여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말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 때문에 압살롬은 3년 동안을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왕과 화해시키기 위해 계획을 꾸미고 이제 다윗과 압살롬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을 배신하고 자신이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급히 도망가는 길에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인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며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다윗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여서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눈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 후에 지금까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은 일들이 다윗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낳

은 어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사이에 근친상간과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맏아들을 또다시 잃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뿐 아니라 쫓겨 가면서도 갖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킨 아들은 다윗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즉각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셔서 그 죄는 용서하시지마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지게 하심으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이 후에 있을 일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12장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1절에는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14절 말씀에는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비록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것을 경계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비록 범죄하는 대상이 사람을 향한다 해도 그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11:27)"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12장9절에도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지만 그 일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싸우던 충실한 장수 우리아는 죽었습니다(11:17). 뿐만 아니라 밧세바가 낳은 어린 아이도 죽었습니다(12:18). 우리아와 이 어린 아이의 죽음은 처음

에 다윗이 계획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고한 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의 집안에는 아들과 아들 사이에 살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맏아들이 자신의 이복 누이를 범하게 되고 또 다른 아들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길을 가는 중에도 갖은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12:14)" 즉 사탄 마귀로 하여금 우리들을 참소할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 이름 그대로 우리들을 미혹하여서 죄에 빠져 부패하게 합니다(고후11:3).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참소하는 원수들인 것입니다(계12:10).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쉽게 생각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사탄 마귀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면 의로운 욥에게서도 고발할 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정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 가운데 용서를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들의 죄악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분의 은혜의 크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회개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모든 일들과 그가 당하는 이러한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정한 회개는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이 죄인 인 것과 우리들이 범한 죄들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다 용서함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